

제3강 제자들을 부르심과 파견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신다. 예수님의 일생을 사생활과 공생활로 나뉜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자렛에서 사신 삼십여 년간을 예수님의 사생활이라 하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약 삼 년간을 예수님의 공생활이라고 한다. 그의 공생활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을 삼으시고자 불러 모으신다.

1. 제자들을 부르심

4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을 부르심 장면은 다음과 같다.

마태 4,18~22; 10,1~4 마르 1,16~20; 3,13~19 루카 5,1~11; 9,1~6 요한 1,35~42

1.1. 루카 복음에 나타나 제자들을 부르심

1.1.1. 출전 , 문학양식과 구조

물고기 기적과 제자들의 부르심(루카 5,1~11)에 대한 진술을 마르코 복음(1,16~20), 마태오 복음(4,18~22)과 비교하면, 서로 비슷한 점들(건네사렛 호수, 사람 낚는 어부들, 시몬과 제배대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보다 다른 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루카 복음(5,1~3)에서는 예수께서 배 위에서 가르치신 데에 비해, 마르코 복음(1,16)에서 그 분이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셨다. 루카 복음(5,4~10)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후 시몬이 부름을 받고 나머지도 다 예수님을 따라간데 비해, 마르코 복음(1,16~17.19~20), 마태오 복음(4,18~19.21~22)에서는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루카가 마르코 복음의 전통과는 다른 전통을 사용하면서 마르코 복음의 영향을 받아 편집한 것으로 여긴다. 루카 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문학양식은 기적사화, 선언문과 소명에 대한 것이다.

첫째, 시몬의 배 위에서의 가르침(5,1~3)

둘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5,4~7)

셋째, 기적에 대한 응답 : 베드로의 고백, 사명과 추종(5,8~11)

1.1.2. 시몬의 배 위에서의 가르침(5,1~3)

“예수님께서 건너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5,1)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느님 자신의 말씀임을 뜻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하느님의 권위를 지닌 것임을 강조한다. 말씀의 내용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루카 4,43)인 것 같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는 ‘겐네사렛’ 호숫가인데, 루카 복음에서 단 한번 나온다. 이 호수는 ‘갈릴래아’ 호수(마르 1,16; 마태 4,18), ‘티베리아’ 호수(요한 6,1; 21,1)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찢고 있었다.”(5,2)

배 주인인 어부들은 저녁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돌아온 후(루카 5,5) 그물을 찢고 있었다. 이 두 배들 중의 하나는 시몬의 것이다. 루카 복음사가는 안드레아의 이름(마르 1,19)을 생략했다. 시몬 이외의 다른 배의 주인에 대한 언급도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균중을 가르치셨다.”(5,3)

예수께서는 시몬의 장모 치유를 통해 당신의 권능을 보여 주셨고, 그것을 체험한 시몬은 예수께서 배를 물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게 하라고 부탁하시자 그분께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예수님이 그의 배를 선택하신 것은 그에게 특혜를 베푸셨고, 당신의 활동을 그의 어부 직업과 관련 지으실 것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신 것은 가르치는 자세를 가리킨다. 그 내용은 문맥상 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1.1.3.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5,4~7)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루카 5,4) 시몬은 장모의 치유를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체험하고서 개인적으로 승복하는 자세를 취해 ‘스승님’이라고 불렀다. 이 칭호는 제자들이 그분을 부를 때 사용한 것이고(8,24,45; 9,33,49) 예수님의 권위에 종속하려는 의지를 ‘선생님’보다 더 강조한 말이다. 시몬은 동업자와 밤새도록 고생을 하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제의에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분의 제의를 따름으로써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루카 5,6) 시몬의 믿음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루카 5,7) 이렇게 예수께서는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이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에 풍성하게 보답하셨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기대 이상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권능에 대한 것이다. 시몬이 체험한 이러한 권능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토대이다(루카 5,10).

1.1.4. 기적에 대한 응답 : 베드로의 고백, 사명과 추종(5,8~11)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5,8)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5,9)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드러난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분 앞에 엎드렸다. 이 동작은 하느님의 권능을 지닌 구세주의 성스러운 발현에 직면한 인간의 반응이다. 두려움은 하느님의 발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드러낸다.(이사 6,1~6; 에제 1,1~2,3; 루카 1,13.30.43; 사도 18,9; 27,24) 또 지금까지 시몬으로 불리던 그가 ‘**시몬 베드로**’로 호명된 것은 그가 중요한 인물이 되어간다는 것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예수께 신앙고백을 했으며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자기를 떠나가시라고 겸손하게 아뢰었다. 그것은 그가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 현존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음을 뜻한다.

둘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그분의 기적 안에 드러나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시몬의 이러한 반응은 죄인인 이사야가 하느님을 뵈어 죽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연상하게 한다.(이사 6,5) 시몬은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죄스러운 인간조건,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비천함을 승복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다.

셋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불렀는데(루카 5,8), 이는 일반적으로 존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예수님이 최상의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고 겸손하게 승복한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배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루카 5,10ㄱ) 시몬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기적과 하느님의 권능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함에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루카 5,10ㄴ).

‘사람을 낚을 것이다’(직역하면 ‘사람을 산 채로 잡다’)라는 표현은 시몬이 문맥상 물에 있는 군중(루카 5,1)을 새로운 생명의 세계, 하느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구실을 할 것임을 뜻한다. 시몬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명의

식을 일깨운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체험한 시몬은 그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갈릴래아 사람이다. 예수께서는 시몬에게만 이 권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현존한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 시몬에게 지도적 구실을 맡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의 명단에서 시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다.(루카 6,14)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루카 5,11) 그들은 예수님의 인품, 가르침과 생활방식에 맞추어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고향 나자렛에서 동향인들의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가, 루카 복음사가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마르코 복음에 나오지 않는 진술을 덧붙여 제자직분을 위한 전적 투신을 강조했다.(루카 5,28; 14,33; 18;22; 12.33).

1.2. 마르코 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부르심(1,16~20)

마르코 복음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들이 곧장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부각한다. 예수를 추종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버림으로써 가능하고, 그 버림은 예수의 가르침에 전적인 의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마르코 복음의 제자 부름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경청과 배움의 자세를 요구한다.

1.2.1. 예수를 따르는 것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한 것은 심판이 아닌 구원에 가까운 비유다. 구원은 사람을 낚는 것이지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회개하라는 선포(마르 1,14~15) 이후, 마르코 복음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 있기를 요청한다.

제자의 부름에 응답한 이들은 ‘실명’으로 언급된다. 시몬과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선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시몬과 안드레아의 정체정보다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곧 즉시 따라나서는 행동에 주목한다. 즉 예수의 부름은 ‘누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를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다. 낚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은 예수의 삶을, 그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제자 됨의 모습을 담아내는 표현이다.

1.2.2. 버릴 수 있는 용기

제자 됨의 길은 분명 ‘사람을 낚는 길’ 인데 그에 앞서 전제되는 것이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정리된다.

첫째, 시몬과 안드레아는 경제적 수단을 내버린다.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그물과 호수는 그들의 일상이고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버리는 일은 제베대오의 두 아들을 통해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와 샹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따라서 버리는 일은 가족관계를 내려놓음을 포함한다. ‘샹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베대오의 가족은 부유한 편이었던 것 같다. 부유한 집안, 그리고 재산을 누릴 가족관계까지 끊어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데 전제되어야 했다.

예수의 제자 부름에 있어서 예수는 말로 제자들을 불렀고, 그 부름을 들은 제자들은 즉시 그를 따라나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름과 응답의 상호관계다. 제자 됨은 예수를 따르는 용기에서 판가름나는 것이지, ‘무엇을’하는 데서 얻은 결과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걷는 길이 제자 됨의 길이다. 따라서 제자 부름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결속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다.

2. 제자들의 파견

제자들의 파견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증인 구실을 하기 위함이다.

2.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루카 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루카 복음사가가 열두 제자의 파견에 대한 서술을 마르코 복음(6,6L~13)에서 따와서 편집한 것이다.

첫째, 권한과 사명 부여(9,1~2)

둘째, 휴대물과 숙박에 대한 규정(9,3~5)

셋째, 사명수행에 대한 요약(9,6)

2.2. 권한과 사명 부여(9,1~2)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루카 9,1)

이제 그분은 열둘을 한자리에 불러 그들에게 악마를 추방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당신의 사명을 계속하도록 힘과 권한을 부여하셨다. ‘힘과 권한’은 루카 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이다. 예수께 힘과 권위를 물려받은 제자들은 악마의 세력을 정복하고(루카 11,18-21) 질병을 퇴치함으로써 하느님의 왕권이 가까이 왔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라고 보내시며”(루카 9,2)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열 두 제자를 파견하셨다. 첫째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

포하고, 둘째는 병든 이들을 고쳐주기 위함이다.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느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당신의 활동을 계속하게 하셨다. 제자들의 질병치유는 예수 메시아의 구원시대를 알리는 표징이다.(루카 4,18~19; 7,22)

2.3. 휴대물과 숙박에 대한 규정(9,3~5)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루카 9,3)

이 구절에서 루카 복음사가는 신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일흔 두 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주신 여행지침에는 신발을 가져가라고 명하셨다. (루카 10,4) 이 지침은 22장 35절에서 확인된다. 마태오 복음(10,10)에서도 신발 휴대는 금지되었다.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정상적이었다(루카 3,16; 15,22). 위의 금지규정은 두 켤레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에 금지된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차림의 여행조건을 명하신 이유는 사명수행을 위해 생활필수품도 하느님께만 의존해야 한다는 데 있다(루카 22,35 참조).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루카 9,4)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대우가 좋은 집을 찾아 다니면서 구걸행각을 하다시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초대교회에서 선교사들이 가정방문을 남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었다(열두 사도의 가르침 11~12)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루카 9,5)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가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를 떠나면서 그렇게 했다(사도 13,50~51).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유대인들도 이방인 지역을 떠날 때 부정(不淨)을 말끔히 털어버리는 뜻으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다. 이러한 행동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배척하고 그들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음을 알리며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다.

2.4. 사명수행에 대한 요약(9,6)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루카 9,6)

병자치유는 그들의 복음 선포가 실효를 거두었음을 가리킨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권한이 제자들의 복음 선포에 현존하는 데 기인한다.